

# 미나토 가나에의 『속죄』에 나타난 비장소성

- 시골 ‘마을’의 살인사건을 둘러싼 도시화 과정을 중심으로 -

임만호\*  
mhlím@gachon.ac.kr

## <目次>

- |      |      |
|------|------|
| 1. 가 | 4. , |
| 2.   | 5.   |
| 3.   |      |

主題語: 장소성(Sense of Place), 비장소성(Non-place), 도시화(Urbanization), 도시형 범죄(Urban crime), 속죄(Expiation)

## 1. 들어가며

본고는 미나토 가나에(湊かなえ)의 작품 『속죄(贖罪)』(2009)에 나타난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에 따른 범죄화 과정을 네 소녀의 독백 - 속죄 - 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실 『속죄』는 미나토 가나에가 데뷔작 『고백』(2008)을 발표한 이후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고백』에 서와 같이 각 장마다 등장인물(구체적으로, 사에(紗英), 마키(真紀), 아키코(晶子), 유카(由佳))의 ‘속죄’라는 독백을 통해 살인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통해서 살인사건의 재구성과 범인을 찾아가는 서사구조는 작품의 미스터리적 요소를 살리기에 충분한 재미와 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각자의 이러한 내러티브가 하나의 살인사건에 퍼즐을 맞추는데 개연성을 부여할지는 모르나, 그 이전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 혹은 필연성을 설득하기에는 표면적 이해밖에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등장인물의 내러티브, 특히 네 소녀들의 독백의 외연에 존재하는 시골 ‘마을’이라는 장소성(그리고 비장소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장소성 분석이야말로, 네 소녀들의 ‘속죄’에 내재된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네 소녀들이 저지른 범죄 원인을 유추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교수

사실 장소성<sup>1)</sup>과 관련해서, 케빈 린치는 “도시나 경관의 물리적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 눈, 마음, 의도 속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특정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체성은 상호 주관적으로 결합되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sup>2)</sup>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해서 장소성이란 다른 특정 장소와 구별되어야 하며, 만일 장소 간의 구별이 없이 균질화 혹은 획일화될 경우에는 장소성의 상실 즉 비장소성<sup>3)</sup>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장소가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장소성 의미가 부여된 만큼, 만일 장소성이 상실된다면, 그 장소에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또한 각자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해체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비장소성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시골 ‘마을’의 도시화를 통해 장소성이 상실되는 과정<sup>4)</sup>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장소성 - 도시화 - 과 네 소녀들의 범죄와의 상관성을 규명한 다음, ‘속죄’의 또 다른 의미 분석 및 장소성 회귀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마을의 장소성과 도시화

작품 『속죄』는 과거 어느 시골마을 초등학교 안에서 발생한 에미리(エミリ)라는 여자아이의 살인사건에 관련하여 목격자인 사에, 마키, 아키코, 유카 그리고 에미리의 엄마인 아사코(麻子)가 15년이 지난 현재, 각각의 독백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작품 내용상 문제가 된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인 네 소녀들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못하고, 이에 아사코는 그녀들에게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거나

1) 어정연은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공간이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물리적이고 추상적이던 공간이 의미 있고 친밀한 구체적인 장소로 다가올 때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어정연·여홍구(2010,11)『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국토계획』45(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25

2)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 외 옮김(2016)『장소와 장소상실』논형, p.109, 재인용

3) 마루타 하지메는 “비장소성은 상정을 잠식하며, 다양성을 균질성으로 바꾸고, 경험적인 질서를 개념적인 질서로 대체한다. 그렇게 갈 데까지 가게 되면 인간의 거주지인 <장소>로부터 소외되고, 소외가 만연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마루타 하지메(丸田一), 박화리·윤상현 역(2011)『‘장소’론』, 심산출판사, p.118

4)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미나토 가나에는 “더러운 것은 숨기고 아름다운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데뷔작부터의 고민이다. 보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나토 가나에(2016.7)『씨네21』씨네 인터뷰

그렇지 않으면 복수할 것이라고 말한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소녀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위 혹은 네 소녀들의 독백(또는 속죄) 과정을 통해 범인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외연에 존재하는 시골마을이라는 장소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시골마을이라는 장소성 소멸과 도시화야말로 네 소녀들이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및 그녀들이 성년이 되어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규명하는데 이해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네 소녀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시골마을의 특징, 장소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사회 시간에 담임인 사와다(沢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에서 공기가 제일 깨끗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압니까?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쓰는 정밀한 기계는 공기 중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장 역시 공기가 깨끗한 곳에다 짓습니다. (중략) 일본 최고의 정밀기기 회사가 우리 마을에 공장을 지었다는 건, 일본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뽑힌 것과 같습니다.” (『속죄』, p.15)

공기가 제일 깨끗하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마을은, 지금까지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폐쇄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을의 장소성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둔 고유한 역사나 전통 및 가치관이 존재하는 독자적 로컬리즘<sup>5)</sup>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쿄와 같은 지방 대도시의 생활양식, 말하자면 인구유입에 따른 익명성을 비롯하여 사건이나 범죄 증가, 아니면 소비문화 발달에 따른 문화 획일화 현상 등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 간에는 개인을 넘어 커다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장소성으로 인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 간에 유대감을 중시하는 것과 동시에 모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지은 지 20년쯤 된 옛 목조 가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관에게 가장 가까운 방을 응접실이라 해서 서양식으로 방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반드시 샹들리에와 유리 상자에 든 프랑스 인형을 놓아두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쪽 그래 왔는데도 에미리가 이사 오기 한 달 전쯤부터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인형을 보러 다니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집을 오가는 정도였지만, 점점 마을 전체를 돌며 구경하기에

5) 루커만은 “장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장소는 자신만의 질서, 즉 고유한 상상불을 이루는데, 이를 통해 다른 장소와 구별된다. 이것은 분명히 모든 장소가 고유한 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에드워드 켈프(2016)『장소와 장소상실』논형, p.28, 재인용.

이르렀죠 시골 마을에선 대부분 이는 얼굴인 데다가, 또 프랑스 인형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에 있었기 때문인지 거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속죄』, p.17)

마을 소녀들이 집집마다 있는 프랑스 인형을 보러 다니는 놀이에 있어서도, 마을 구성원은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서로 알고 있는 만큼 경계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주민 센터 운동장에서 잔치가 열리던 날에는 “어느 집도 현관을 잠그지 않았다”(『속죄』, p.20)고 말한 바와 같이, 마을의 장소성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기능과 함께, 그들의 관계를 폭넓게 맺을 수 있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시골마을 사람들은 생활공동체<sup>6)</sup>라는 통합 아래 서로가 유기적, 일체적 관계를 맺으며 신뢰한 만큼, 사고나 범죄가 없는 마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골마을에 아다치(足立) 제작소가 새로운 공장을 세움으로써, 점차 마을의 장소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 공장이 생기고부터 우리들 사이에 이상한 감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리를 포함한 도쿄에서 전학 온 아이들을 통해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 꽤 불편하고 뒤쳐진 것임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선, 사는 곳부터가 달랐습니다. 마을에 5층 이상 되는 건물이 생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아다치 제작소 사원 아파트는 자연과 하나 되는 디자인을 테마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는 마치 외국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속죄』, p.15)

도쿄에서 온 에미리가 사는 사원 아파트에 초대받은 네 소녀들은 그녀의 집에 간 순간,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 구조와 다른 것에 놀라고 있다. 즉 방이 벽으로 나누어 있지 않고 거실이나 주방, 식당이 하나로 연결된 아파트 구조는 마치 ‘외국의 성’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의 이질성은 앞으로 그녀들이 살았던 시골마을이 낯설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마을 사람과 새롭게 이주해 온 사람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 또한 점차 도시화(마을 사람들도 포함해서)로 되고 마는, 이른바 지금까지 지역적 문화 다양성이 사라진 획일화,

6) 케빈 린치는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제공하며,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고 간단히 정의했다. (중략) 정체성은 도시나 경관의 물리적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 눈, 마음, 의도 속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특정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체성은 상호 주관적으로 결합되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 외 옮김(2016)『장소와 장소상실』논형, p.109

균질화와 같은 비장소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마을 소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프랑스 인형 견학투어와 순위를 매기던 인형수첩은 도시에서 온 에미리의 말 한마디로 더 이상 흥미를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미리가 “난 역시 바비가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에미리에게 악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그때까지 반짝반짝 빛나 보였던 프랑스 인형이 순식간에 시시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프랑스 인형 놀이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인형수첩도 책상 서랍 속에 방치된 채 다시는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속죄』, pp.18-19)

마을 집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프랑스 인형이 에미리 집에는 없다는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을 소녀들이 도시 소녀인 에미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으리라 본다. 하지만 에미리는 프랑스 인형 대신에 바비 인형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내 그러한 자랑거리인 프랑스 인형은 부정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부정이 단순히 프랑스 인형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 인형의 부정과 바비 인형의 긍정은, 소녀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마을 부정 - 획일화, 균질화 - 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만 것이다.

즉, 주위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무지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네 소녀들 중에 리더였던 마키는, 아다치 제작소의 신공장이 세워지고 도쿄에서 전학생인 에미리가 들어온 이후 더 이상 리더의 역할<sup>7)</sup>을 못하고 있다. 이에 마루타 하지메는 “우리가 <장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와 <세계>의 상실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소의 상실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sup>8)</sup>”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네 소녀들’과 ‘마을’의 상실 또한 마을의 장소성이 도시화 - 비장소성 - 된 결과<sup>9)</sup>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마을의 도시화는 네 소녀들에게 마을의 장소성을 부정하게 하였으며,

7) 에미리가 하는 말은 전부 옳다. 그 후 반 아이들은 뭔가 결정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에미리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도회지의 지식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학급 당번이나 오락회 내용을 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중략) 하지만 단짝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제 의견이 묵살되는 건 역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죠. (『속죄』, p.78)

8) 마루타 하지메(丸田一), 박화리·윤상현 역(2011)『‘장소’론』삼산출판사, p.115

9) 한편, 이러한 마을의 도시화 현상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또한 이질감은 느끼고 있는데, 에미리의 어머니인 아사코는 마을의 이질감에 대해서 “생활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 도착한 날부터 난 도쿄로 돌아갈 생각만 했지. 물리적인 불편함도 물론 싫었지만 무엇보다 폐쇄적인 마을 사람들이 싫었지. 마치 외국인을 대하듯 했으니까. (중략) 아다치 제작소가 하루 빨리 마을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거든”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속죄』, pp.231-232)

그와 더불어 자신들의 자아마저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에 따른 정체성 해체 현상은, 앞으로 논할 학교에서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 3. 비장소성에 따른 도시형 범죄

이와 같이 시골 마을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유한 습관이나 역사, 전통, 가치관 등이 아다치 제작소의 신공장 건설 그리고 도쿄에서 온 이주민으로 인하여 획일화, 표준화, 동질화와 같은 비장소성화로 변질되고 있다. 즉 마을의 도시화는 이른바 대중소비라는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생활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도시 특유의 익명성이 스며들어 도쿄와 마찬가지로 도시형 범죄가 마을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비장소성<sup>10)</sup>은 단순히 장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을 안에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 또한 점차 정체성 혼란을 비롯해 각 개인의 자아가 상실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작품에서는 마을 사람의 비장소성 - 도시화 - 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학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 하겠다. 사실 마을 학교는 정오에는 ‘에텔바이스’가, 저녁에는 ‘그린슬리브스’ 음악이 흐르는 평화롭게 한적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 누구나 자유로이 들어와 놀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 개념의 공동체적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이주민이 마을에 온 이후, 일어난 살인사건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안전한 장소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목격한 네 소녀가 범인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sup>11)</sup>는 점이다.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목격자는 최소한 네 명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만 하는 거야. (중략) 정말로 생각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너희들은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어. 얼굴만이 아니라. 에미리가 혼자 낯선

10) 이석환은 “장소 정체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인식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그것만의 독특함과 선명성을 지닌다. (중략) 정체성은 장소가 인간으로부터 장소 자체의 정체성을 얻고 또한 인간이 장소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석환·황기원(1997.10)「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국토계획』32(5),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p.178

11) 다만 마키의 경우는 15년 후에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남자한테 이끌려 가는 걸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고, 한 시간이 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지. 친구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았지. 너희들은 슬프지 않았던 거야. (『속죄』, pp.253-254)

아사코의 입장에서는 딸을 잃은 슬픔에다, 범인의 모습을 목격한 학교 친구인 사에, 마키, 아키코, 유카 어느 누구도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서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목격자인 네 소녀들의 입장에서 범인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소녀들에게 똑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에 여지가 있다. 이에 관련해서 미우라 아츠시(三浦展)는 비장소성과 범죄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족이 변했다, 청소년이 변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풍토가 변한 것이다. **범죄나 사건의 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토대 자체가 변질했거나 아니면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샌가, 토대와 풍토가 확실히 변질 혹은 유출된 것이다. (중략) 범죄가 많은 위험한 도시와 한적하고 평화로운 지방. 이젠 이제 환상의 이분법적 세계이다. 패스트 풍토화된 지방이야말로 지금 가장 위험하다.<sup>12)</sup> (진하게 - 인용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선 풍토가 변한다는 말은 마을의 도시화로 인하여 비장소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변질되거나 아니면 각 개인의 정체성이 변질 혹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네 소녀들의 범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우라 아츠시가 말한 ‘토대 자체가 변질했거나 소멸’처럼 그들 개인적 문제보다는 마을의 비장소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시골 마을이 도시 사람들의 이주로 장소성이 변질 혹은 소멸된 결과, 네 소녀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 내의 살인사건에서 보인 익명성과 범죄성으로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의 살인사건에 따른 네 소녀들의 비장소성 경험은, 더 이상 과거 장소성으로 유지할 수 없게<sup>13)</sup> 되었고, 네 소녀들의 삶 또한 도시적 인간형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난 후, 아사코가 도쿄로 돌아가기 전에 네

12) 三浦展(2004)『ファスト風土化する日本』洋泉社, pp.3-5  
13) 마키의 독백에 나타난 소녀들의 비장소성은 “우리 네 사람은 사건 이후 같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략) 늘 겁먹은 듯 주눅 들어 있는 사에나 등교 거부를 반복하는 아키코, 밤거리를 배회하고 좀도둑질이나 하는 불량 청소년으로 빠진 유카”(『속죄』, p.93)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녀들에게 말한 것은 이러한 마을의 비장소성을 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난 너희를 절대로 용서 못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범인을 찾아내.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속죄를 하라고. 그것도 안 하면 난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야. 난 너희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권력이 있어.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에미리보다 더 처참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에미리의 부모인 나한테만은 그럴 권리가 있어” 범인보다 아주머니가 더 무서웠습니다.

(『속죄』, p.96)

여기서 아사코가 네 소녀들에게 속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속죄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贖良)받는 일. 또는 죄나 속박에 대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지 네 소녀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 못한다는 것으로는 죄로 성립되지 않는 만큼, 속죄할 것도 없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코가 속죄하라고 말한 것은 네 소녀보다는 오히려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런 마을에 오지 않았으면 에미리는 죽지 않았을 거라며, 이 마을이 에미리를 죽인 거라며 마을 자체를 증오하고 있었음에도 내가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건, 마을을 떠나면 모두들 사건을 잊고 말 테니까. 그렇게 되면 범인은 영원히 못 잡을 테니까. (『속죄』, pp.256-257)

아사코는 범인을 찾지 못한, 혹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유로 네 소녀들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협조 등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을에 오지 않았으면 에미리는 죽지 않았을” 것과 같이, 마을에 도시화로 인한 비장소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15년 후 네 소녀들의 독백에서 서서히 나타난 범인은, 과거 도쿄에서 아사코가 사귀었던 난쵸 히로아키(에미리 또한 난쵸 히로아키와 아사코 사이에서 태어난 딸)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마을은 도쿄라는 도시의 비장소성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을의 도시화는 앞으로 네 소녀들의 삶에 각각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네 소녀들 중, 사에는 이러한 비장소성에 따른 변화가 좀 더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에미리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 다음에는, 그럼 왜 에미리였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랐지만, 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섯 명 중에서 에미리만이 어른이었기 때문이죠. 어른이 돼 버린 탓에 남자한테 이상한 짓을 당하고 살해되었다. 그 남자 - 범인은, 이제 막 어른이 된 여자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죄』, pp.33-34)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사에는 에미리가 어른이 된 까닭에 살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그녀가 말한 어른이란 네 소녀들보다 빨리 에미리만 생리한다<sup>14)</sup>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에를 포함한 세 소녀들의 생각 또한 도쿄에서 온 에미리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신들과 다른 세계<sup>15)</sup>에 사는 비장소성 인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사에가 “어른이 되어서 안 된다”, “어른이 되지 않은 몸이 날 지켜 줄 것이다”고 생각한 것은 곧 비장소성을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 취업한 지 25세 때까지 한 번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른을 거부하는, 마치 생가의 응접실에 있던 자신과 닮은 ‘프랑스 인형’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을이 도시화되기 이전의 모습인 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때 사에와 같은 시골 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는, 프랑스 인형을 흠친 범인인 타카히로(孝博)와 결혼한 후, 그의 변태적인 성적 성향으로 목숨이 위험한 순간 일어난 생리 현상은 과거 에미리가 겪었던 어른이 되면 살해당한다는 위기감과 함께 사에 자신도 이젠 에미리와 같은 도시화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사에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타카히로를 살해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형 범죄<sup>16)</sup>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따라서 시골 마을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장소성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점차 도시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 사람들 또한 도시 사람들처럼 표준화, 복잡화, 익명성<sup>17)</sup>으로

14) 에미리가 범인에게 이끌려 가고 나서, 네 사람은 배구 놀이를 마치고 수다 떠는 와중에 나온 말로, 실제로 에미리가 생리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15) 아키코는 “예쁘고, 스타일 좋고, 영리하고, 운동 잘하고, 손재주까지 좋은 부자, 확실히 불평등하더군요. 에미리와 나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비참해질 뿐이었죠 (중략) 난 처음부터 에미리를 다른 세계 사람으로서 좋아했어요”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도시화 현상이나 비장소성에 관련해서 마루타 하지메는 “지방에는 대형 쇼퍼센터, 편의점, 패밀리 레스토랑, 노래방, 슬롯머신 가게 등이 일률적으로 늘어서 있고, 소비지의 교외화에 따라 근교 상점가는 타격을 입고 중심 시가지는 공동화되어 간다. (중략) 획일적인 대중소비의 생활방식이 확산되어 지방의 생활은 변질되고 고유의 음식문화가 사라지고 도시 특유의 익명성이 지방에도 스며들어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지방에서도 일어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루타 하지메(丸田一), 박화리·윤상현 역(2011)『‘장소’론』심산출판사, p.34

17) 사에가 도쿄에 간 이유도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내 모습을 지워 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나를,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범인의 눈으로부터 숨기고

인하여 도시형 사회 문제나 범죄가 증가한다는 - 네 소녀들에게서 보이는 범죄 -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범죄, 그 장소성 회귀의 한계

이처럼 소녀들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게다가 3년 후 아사코가 요구한 속죄로, 네 소녀들은 15년 동안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것은 물론, 점차 비장소적 도시형 인간화로 변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에와 마키, 아키코, 유카가 각각 도시형 인간화가 됨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도시적 범죄와 관련된 주체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비록 그녀들이 자신을 나름대로 속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로의 회귀, 어릴 적 마을에서 느꼈던 깨끗한 공기가 있는 장소성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먼저 사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타카히로와 결혼한 후, 스위스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그와 함께 스위스 어느 마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깨끗한 공기는 그 마을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 밖에는 비슷하다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둘만의 생활을 시작한지 딱 2주일이 지났군요.

(『속죄』, p.46)

스위스 어느 마을은 사에가 태어나서 살았던 시골 마을과 같이 ‘깨끗한 공기’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아직 도시문화가 유입되지 않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유한 문화나 습관을 보전 및 유지해 가는 장소성이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에는 처음 2주일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비장소성인 마을이나 도쿄에서 완전히 벗어나<sup>18)</sup>, 오랜만에 그녀가 되찾고자 했던 장소성이 있는 마을의 그 일원으로 동일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에는 스위스 어느 마을에서 과거 ‘프랑스 인형’을 훔친 범인이자, 변태적인 성적 성향을 가진 타카히로를 살해함으로써, 스위스 마을은 ‘변태’와 ‘살인’이라고 하는 도시형 범죄로 인하여 재차 비장소성<sup>19)</sup>으로 되돌

싶었던 것입니다”(『속죄』, pp.12-13)라고 말한 것처럼, 도시의 익명성의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8) 사에의 그러한 노력은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내 모습을 지워 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나를,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범인의 눈으로부터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속죄』, pp.12-13)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 이석환은 “정체성의 일치는 그 대상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을, 즉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아오고 있다.

어쩌며 징역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해방감을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전 조금도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 깨끗한 공기를 당연하게 마시던 시절의 나 자신으로 가까스로 돌아온 기분이드네요. (『속죄』, p.60)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에의 마지막 편지에서 언급한 ‘진정한 해방감’ = ‘깨끗한 공기를 당연하게 마시던 시절의 나 자신’은 한낱 그녀의 희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만 현재로서는 사에가 도시화에 따른 비장소성을 벗어나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한시적이거나 교도소라는 외부 세계와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마키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키가 초등학교 선생으로 부임한 바닷가 마을은, 그녀가 옛날에 살던 시골 마을로 회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은 산골 마을로, 면적과 인구가 여기와 비슷한 곳입니다. (중략) 지역에서는 벽지로 통하는 이 마을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도 전 그다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습니 다.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사는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하고 물으면, 바다가 아름다운 곳, 또는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이란 대답이 돌아옵니다. (중략)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좋은 점은, 일단 외지로 나가보지 않는 한은 인식하기 어려운 법이죠. (『속죄』, pp.73-74)

외부와 차단된 벽지 바닷가 마을은, 과거 공기가 깨끗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 시골 마을을 연상시키고 있다. 사실 마키가 이 지역 대학에 지원해서 온 것 또한 살인사건 이후 도시화로 인해 변해버린 마을의 비장소성에서 벗어나, 장소성으로의 해방감을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마키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영 수업시간에 발생한 묻지마식 살인미수 사건, 그리고 그 범인을 막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살인(나중에 상해죄를 받음)을 하고 마는데,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자신이 살던 마을과 비슷하다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와 같은 비장소성이 내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것을 의미한다. 즉 그 대상을 상실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상실한다는 것과 어떤 측면에서는 같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석환·황기원(1997.10)「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국토계획』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178-179

물론 학교도 학생들에게 주의는 주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수상한 사람이 말을 걸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책가방에 달린 경보기를 울리며 도망치라고요. 차는 절대로 타지 말라고요. 가까운 가게나 가정집으로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다니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른에게 알려라고요. (『속죄』, p.83)

위에서 언급한 주의나 규칙은, 흔히 도시 학교에서나 있을 법 하지만, 현재 바닷가 마을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바닷가 마을 또한 도시화에 따른 비장소성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마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한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이, 15년이 지나서는 일본 전국 어디에서나 재연 및 확장<sup>20)</sup>되고 있다는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키는 과거 장소성을 찾고자 바닷가 마을로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키는 범인이 묻지마식 살인을 하고자 했을 때, 범인과 싸워서 학생을 구한, 체육 남자 선생인 타나베 - 과거 마키의 모습<sup>21)</sup> - 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그녀 스스로 과거 시골 마을에 있었던 자아가 이미 상실<sup>22)</sup>되고, 탈사회화<sup>23)</sup>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아키코와 유카의 경우에서도, 사에와 마키와는 달리 그녀들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15년 동안 시골 마을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비장소성인, 도시형 범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키코의 오빠는 어릴 적 친한 동창이었던, 그러나 도쿄에 가서 ‘나쁜 예의 표본’이라 할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온 미혼모 하루키(春花)와 결혼해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밤 아키코는 오빠가 이제는 자신의 딸이 된 와카바(若葉)를 성적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살해하고 만다. 그리고 유카의 독백 또한 아키코와 유사한 범죄를 언급하고 있다. 즉 살인사건과 아사코의 협박에 가까운 속죄 요구가 있고 나서, 좀도독질을 하거나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게 된 유카는 자신의 언니의 남편인 형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된다. 그리고 유카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 온 형부와 말다툼 끝에, 형부를 밀어 살해한다.

20) 예를 들어 마키는 “전국 각지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살인사건이 터지는데”, 그리고 범인 세키구치 가즈야(関口和弥)가 학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이 나라는 곧 망한다. 살아서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음을 택하라!”라고 말한 것은, 일본 전 지역이 비장소성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1) “타나베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게다가 전 자신이 싫었습니다”(『속죄』, p.99)

22) 마키의 독백 중에서 “전 결코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전 중요한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였습니다”(『속죄』, p.89)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경험한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혹은 정체성 해체를 말하고 있다.

23) 탈사회화: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에서 배운 내용을 버리는 과정을 탈사회화라고 한다. 탈사회화는 재사회화 과정과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탈사회화는 주로 재사회화의 앞선 단계로 나타난다.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이전의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백지화하는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키코와 유카의 독백에서는 대부분 지역 사회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근친상간은 물론 가족 살해라고 하는 반인륜, 반윤리적 범죄가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시골 마을이 도시형 범죄로 인해 더 이상 장소성을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너도 변하는구나.”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아주머니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거 같아. 나도 그런 일을 겪으면 같이 놀던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엄마가 무서운 거야. 아니, 강한 거겠지. 요즘 고향집에 살지? 몇 년 후면 그 아이도 이 학교에 다니겠네.” “아냐. 몰랐어? 여기는 내년 3월에 폐교해. 저출산 시대잖아. 앞으로는 옆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게 된대. 학교 건물도 워낙 낡아서 아예 철거할 건가 봐” (중략) “이러다 이 마을도 합병이다 뭐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지 몰라” (『속죄』, pp.298-299)

특히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형 범죄는 마키와 유카 세대들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마루타 하지메는 “비장소성은 개인과 문화 양쪽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전 세계의 다양하고 의미 깊은 장소를 유래도 알 수 없는 공간과 교환 가능한 환경으로 대책 없이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sup>24)</sup>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은 유카가 낳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면서 점차 확장되어 우리들이 돌아갈 고향 - 장소성 - 을 잊게 만들고 있다.

## 5. 마치며

이상과 같이, 『속죄』에 나타난 살인사건을 마을의 도시화라는 비장소성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사실 시골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 범인을 찾아가는 추리 소설 성격상, 각 장(章)마다 등장인물의 서사구조가 살인사건의 실상과 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사에, 마키, 아키코, 유카 그리고 에미리의 어머니인 아사코의 외연에 존재하는 마을의 장소성, 혹은 비장소성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독백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는데 보다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여기서 말한 장소성이란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면서 특정 의미를 갖게 되거나 부여된 인식 환경을 갖는 장소적 특징이며, 만일 도시화에 따른 비장소성이 일어날 경우 다른 장소와의 구별이 없는 균질화 혹은 획일화 현상은 물론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해체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

24) 마루타 하지메(丸田一), 박화리·윤상현 역(2011)『‘장소’론』심산출판사, p.36

한다. 더욱이 도시화로 인한 비장소성은 그 익명성으로 도시 특유의 도시형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속죄』에서 보인 시골 마을의 도시화, 아다치 제작소의 신공장 건립으로 도시에서의 이주민 유입은 지금까지 마을의 장소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이러한 마을의 비장소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마을의 비장소성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네 소녀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네 소녀들이 범인의 얼굴을 기억 못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비장소성으로 인한 자아 상실 혹은 신체적 변화 등의 반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살인사건 이후, 15년 간 네 소녀들은 도시형 반윤리적, 반인륜적 범죄나 살인, 그리고 서서히 범인의 윤곽을 밝혀지는 과정에서 비장소성 인간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속죄』에 나타난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은 기존의 지역사회가 갖는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잊게 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화에 따른 표준화, 획일화, 익명성으로 변질해가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 현대 일본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추리 소설 이상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이석환·황기원(1997)「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25-179
- 어정연·여홍구(2010)「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국토계획』 45(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25
-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역(2011)『‘장소’론』심산출판사, pp.36-115
-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 외 옮김(2016)『장소와 장소상실』논형, pp.28-109
- 三浦展(2004)『ファスト風土化する日本』洋泉社, pp.3-5
- <텍스트>
- 湊かなえ(2009)『贖罪』東京創元社
- <사진>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X66282>.

논문투고일 : 2019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미나토 가나에의 『속죄』에 나타난 비장소성

- 시골 ‘마을’의 살인사건을 둘러싼 도시화 과정을 중심으로 -

임만호

미나토 가나에(湊かなえ)의 『속죄(贖罪)』(2009)는 데뷔작 『고백』(2008)처럼 각 장마다 등장인물의 독백을 통해 살인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사구조는 작품의 미스터리적 요소를 살리기에 충분한 재미와 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각자의 내러티브가 한 살인사건의 퍼즐을 맞추는데 개연성을 부여할지는 모르나, 그 이전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 혹은 필연성을 설득하기에는 표면적 이해밖에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등장인물의 내러티브, 특히 네 소녀들의 독백의 외연에 존재하는 시골 ‘마을’이라는 장소성(그리고 비장소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소성 분석이야말로, 네 소녀들의 ‘속죄’에 내재된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네 소녀들이 저지른 범죄 원인을 유추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소성이란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면서 특정 의미를 갖게 되거나 부여된 인식 환경을 갖는 장소적 특징이며, 만일 도시화에 따른 비장소성이 일어날 경우 다른 장소와의 구별이 되지 않는 균질화 혹은 획일화 현상은 물론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해체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도시화로 인한 비장소성은 그 익명성으로 도시 특유의 도시형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작품 『속죄』에 나타난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은 도시화로 인해 변해가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 현대 일본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추리 소설 이상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Non-place in Minato Kanae's 'Expiation'

- Focus on the urbanization process surrounding the murder in rural 'village' -

Im, Man-Ho

In Minato Kanae's novel 『Expiation (2009)』, it is reconstructed the murder through the monologue of characters in each chapter like her debut novel 『Confessions (2008)』. Likewise, the narrative structure provides enough fun and imagination to bring the mystery element of the novel.

Each narrative, however, may give a probability to the puzzle of a murder case, but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only superficial understanding to persuade the probability or inevitability that they had to do before. In that sense, this study focuses on the narrative of the characters, especially on the sense of place (and non-place) in rural "village" existing on the edge of the four girls' monologues.

A place analysis make it possible to infer the causes of crime committed by the four girls in the future including the murder case inherent in 'Expiation' of the girls.

What is the sense of place in this study is a place characteristic to take a certain meaning by person's experience of a place or to have a given environment of consciousness. If non-place by urbanization occurs, it means that not only the homogenization or uniformity phenomenon that is indistinguishable from other places but also the human beings living in it will be also dissolved their own identity.